

왕장과 옥장, 고래의 쇼기는 쌍왕??

쇼기는 '전쟁 게임'이었다는 설 외에 '보물을 빼앗는 게임'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설도 있습니다. '옥(玉)'은 보석, '금·은'은 귀금속, '계·향'은 향신료나 향목을 나타내는 말로, 옛날 쇼기 기물은 적아군 모두 '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쇼기 기물은 '옥장'과 '왕장'이 들어가 있지만, 능력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예의상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기력이 강한 사람이 '왕장'을 가지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기력이 약한 사람이 '옥장'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카하시 서점 '쇼기입문'에서 발췌(일부 가필)